

해상왕국 건설을 향한 꿈과 좌절

- 진도 삼별초유적의 고고학적 성과 -

고 용 규 (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 부원장)

목 차

- I. 머리말
- II. 용장성 왕궁지 조사현황
- III. 용장성 왕궁지 출토유물
- IV. 맺음말

I. 머리말

진도 용장성(珍島 龍藏城)은 강화도 고려궁지, 제주도 향파두리성과 함께 고려말 삼별초군의 대표적인 대몽항쟁유적이다. 서해와 남해를 가르는 바닷길에 놓여있는 진도는 13세기 말 해상왕국을 향한 원대한 꿈을 품은 삼별초군의 왕궁이 건설되었다. 채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격동기 우리 역사의 주요 무대가 되었다. 1270년(원종 11) 6월 초 또는 8월 중순 무렵 크고 작은 배 1,000여척으로 강화도를 출발한 삼별초군이 보름여의 항해 끝에 진도 벽파나루터(碧波津)에 도착했다. 그들은 왜 수많은 섬들을 놔두고 한반도의 한쪽 귀퉁이에 치우쳐 있는 진도를 선택했을까?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어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떨쳐 버릴 수 없다.

고산자 김정호(金正浩)는 삼별초군이 도착 후 곧바로 왕국건설에 착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700년도 넘는 먼 세월을 지나 망각의 기억 속으로 사라졌던 왕궁의 실체가 발굴조사를 통해 서서히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조사결과 이전부터 있던 절을 넓혀 왕궁으로 고쳐 짓고, 왕궁의 바깥쪽에 흙으로 성을 쌓아 내성(內城)으로 삼았으며, 다시 그 외곽의 산 능선을 따라 둘로 13km에 이르는 외성(外城)을 쌓아 이중구조의 도성(都城)을 갖춘 사실이 밝혀졌고, 내성과 외성 사이의

공간에는 도성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도시계획이 실시된 흔적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끝이어 뒤 쫓아온 여몽연합군은 벽파진 건너편의 삼지원에 진을 치고 거친 명량해협을 바다를 사이에 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투를 하면서 짧은 시간에 대규모의 도성시설을 갖추었다는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정황상 이해하기 쉽지 않다. 급하게 강화도를 떠난 점이나 삼별초군이 진도에 머문 기간이 열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저간의 사정 때문이다. 그리고 ‘오랑(五狼)’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며, 고려의 정통성을 계승한 정권이라 주장해온 진도 삼별초 정부가 사전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진도에 들어와서야 도성의 건설작업을 시작했다는 것도 의문이다. 대몽항쟁의 거점으로 활용된 용장성은 산 능선을 따라 약 13km의 규모로 축조된 산성과 계단식으로 구획된 대지 위에 마련된 왕궁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궁장(토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들 주변에는 의례를 담당했던 제사공간과 다양한 기능을 했던 건물들이 산재해 있다.

II. 龍藏城의 調查現況

용장성에 대한 학술조사는 1986년 지표조사¹⁾가 시작된 후 1989년 F지구 학술조사²⁾, 2004년 용장산성 시굴조사³⁾와 같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 2009년부터 목포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왕궁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왕궁지에 대한 조사결과, 각 지구마다 여러 동의 건물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제반시설들이 완전한 상태로 확인되어 학계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 목포대학교박물관에서는 용장성 왕궁지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산성의 성격을 규명함과 동시에 삼별초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13세기 동아시아 세계와 진도 삼별초』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2년 하반기에는 목포대학교박물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또 하나의 고려궁성, 珍島 龍藏城』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마련하여 그동안의 발굴 및 연구성과를 공개하였으며, 박물관을 방문하는 지역민과 관람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글은 왕궁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시작된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아직 왕궁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향후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잘못 해석된 부분은 앞으로 보완하고자 하며,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진도 용장성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은하건축설계사무소, 1985, 『珍島 龍藏城 地表調査報告書』.

2) 최성락, 1990, 『珍島 龍藏城』, 全羅南道·珍島郡.

3) 고용규, 2004 『진도 용장산성』, 목포대학교박물관·진도군.

<표 1> 진도 용장성 조사경과

조사연도	조사내용		비고
1985년	· 전체적인 현황측량 및 일부 시굴조사		지표조사
1989년	유구	건물지 4동, 회랑지 3동, 보도시설, 배수로 등(F지구) 각 단에 대한 부분적인 트렌치 조사(A, M, O지구)	학술조사
	유물	명문기와(大寺, 願堂主, 甲午八月日, 珍島 등) 및 평기와류, 특수기와, 자기류(청자, 분청자, 백자), 동전류, 불두편 등	
	기존 사찰건물을 활용하여 궁궐로 이용		
2004년	유구	성벽, 문지, 제사유적, 건물지 등	발굴조사
	유물	명문기와(삼월, 대장, 혜) 및 평기와류	
	「계묘삼월대장혜인」 간지명 명문기와 -용장산성 축성시기(1243년 고종 30)		
2009년	유구	건물지 1동(A지구)	발굴조사
	유물	막새류, 평기와류, 이행기와 등	
	기단을 포함하여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건물지 확인 → 입지나 건물지 규모, 구조적인 양상을 고려해 볼 때 정청(政廳) 기능을 갖는 건물로 판단(난방시설과 생활용기는 확인되지 않음)		
2010 ~ 2011년	유구	B-P지구조사(7개지구)-건물지 22동, 배수로, 수구, 아궁이, 축대, 계단, 보도시설 등	시·발굴조사
	유물	막새류, 평기와류, 자기류, 도기류, 청동기류, 철기류, 이행기와 등	
	사전기획에 의해 구축된 건물지들의 구조와 배치상태 파악 → 개성 만월대와 유사 사찰 관련 유물 다수 출토, 왕궁지 내 공간분할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 파악 등		
2012년	유구	건물지, 배수로, 아궁이, 수구 등	발굴조사
	유물	막새류, 평기와류, 자기류, 도기류, 청동기류, 철기류, 이행기와 등	
	건물의 개축 흔적 확인, 치밀한 배수체계 확인 등 → F지구와 같이 사찰영역으로 사용되다가 삼별초에 의해 건물을 개축하여 사용된 것으로 추정		

Ⅲ. 龍藏城의 構造

1. 內城과 王宮址

용장성 왕궁지는 용장산성의 남쪽 능선과 인접한 계곡부에 자리한다. 남고북저

南高北低의 경사면을 이용해 18단으로 구획된 대지 위에 건물들을 배치하였으며, 그 외곽을 석심토축石心土築의 토성(궁장)이 감싸고 있다.

왕궁지의 입지는 북쪽으로 산을 등지고 남쪽으로 물을 바라보는 것과 달리 남쪽으로 산을 등지고 북쪽으로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 곡간지에 자리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로 인해 왕궁지로의 진입은 자연스럽게 북쪽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같은 입지상의 특징 즉 자연지형의 조건을 이용한 방식은 고려의 도성이었던 개성 만월대와 닮아 주목된다. 개성 만월대는 송악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계단식의 축대를 쌓고 그 위에 건물을 올렸다. 입지상 계곡부를 이용한 용장성 왕궁지와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자연 지형을 활용한 점은 분명 닮아 있다. 이는 평지에 도성 체계를 갖춘 중국의 고대 도성이나 조선의 경복궁과는 다른 고려만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자연 지형을 이용해 건물을 조성하는 것은 지기地氣를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의지와 관련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궁궐을 높은 곳에 두어 건축적 위용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도 볼 수 있다.

왕궁지 외곽을 두른 토성은 길이 425m의 규모로 동쪽 계곡부와 북쪽진입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확인되며, 1989년 조사에서 일부 구간의 구조가 밝혀졌다. 남벽은 중심부에 높이 1m, 너비 1m 규모의 석축 위로 흙을 다져 쌓은 토루 구조로 주변에서 막새를 비롯한 다량의 기와가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상부는 기와를 덮었던 궁장宮牆으로 추정된다. 바깥으로는 배수의 역할을 한 도랑이 설치되었다. 유실된 것으로 알려진 서벽은 경사면에 의지하여 돌을 덧댄 석축구조물이 확인되었다.

용장성 왕궁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1989년 왕궁지 중앙에 위치한 F지구를 시작으로 2012년 9월까지 4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총 18단 중 A지구를 포함한 10개 지구(A·B·C·D·E·F·G·K·L·P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38동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건물은 사전기획에 의해 계단식으로 조성한 대지 위에 기본적으로 북쪽의 축대열에 맞추어 주건물을 배치하였고, 나머지 남은 공간에도 건물을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다. 나머지 지구 또한 시굴조사를 통해 건물이 빈틈없이 배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왕궁지는 유구의 잔존상태와 출토유물 등을 고려할 때 왕의 거주공간과 회랑, 제사의례공간, 숙소용 공간 등으로 구분되며, 무엇보다 치밀하고 계산된 배수체계를 갖춘 점이 주목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왕의 거주공간과 회랑-A·B지구

왕의 거주공간과 회랑의 기능을 담당했던 건물은 A와 B지구에서 확인된다. A지

구는 북쪽축대열에 맞추어 남향 건물지 1동만이 확인되었다. 건물지의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3칸이다. 건물지는 기단을 비롯하여 초석과 적심, 고맥이(석열), 바닥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이중 고맥이는 건물지 가장자리에 있는 초석열(외진주)과 건물의 내부에서 확인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공간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시설은 자연할석을 건물 축조시 인위적으로 깎 것인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으로 보인다. 왕궁지 최상단에 위치하는 A지구 건물은 내부에서 아궁이, 온돌, 고래와 같은 난방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생활용기가 거의 출토되지 않고, 바닥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마루시설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입지와 건물의 구조적인 특징, 출토유물 등을 고려하면 건물의 기능은 정전正殿으로 추정된다.

B지구에서는 A지구로 통하는 회랑건물이 확인되었다. B지구는 주건물인 북쪽회랑과 규모가 다른 동·서 회랑이 남쪽으로 연결된 형태로, 그 중앙에 중정中庭을 두었다. 북쪽회랑의 규모는 정면 1칸, 측면 1칸이다. 기둥을 받쳤던 초석은 덩벙주초로 특이하게 이중구조를 띤다.

동·서 회랑은 정면 2칸, 측면 1칸이다. 서쪽회랑에서는 A지구 하단 보조축대 위에 목제 계단시설의 받침돌로 보이는 초석이 확인되었다. 이는 B지구에서 A지구로의 출입이 동·회랑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보조축대에는 A지구 건물의 지붕이나 난간을 받쳤던 것으로 추정되는 초석과 적심석들이 일정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B지구는 회랑은 A지구 건물과 서로 연결된 구조를 보인다. 이 같은 건물의 배치 형태는 개성 만월대에서도 확인된다. 즉 지형을 고려한 입지선정과 더불어 건물의 배치나 구조적인 특징도 고려도성의 구조와 일치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2) 제사·의례공간-P지구

제사·의례공간으로 추정되는 P지구는 왕궁지의 서쪽에 자리하며, 건물의 규모는 정면 9칸, 측면 3칸이다. 다른 건물지와 차별되는 구조를 갖춘 P지구는 건물지 중앙 바닥에 편평한 자연할석을 깔고, 그 위로 마루를 받쳤던 보조기둥(동자주)들을 설치하였다. 건물지 중앙 양쪽에는 일정 높이의 단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고, 아궁이가 1기씩 확인되었다. 유물은 건물지의 성격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청동유물들과 청자철재귀문향로가 출토되었다. 이 향로는 청동향로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제작기법에 있어서도 산성 내 제사유적에서 출토된 철화연화문장고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이 같은 사례는 드문 편이다.

P지구는 건물의 입지, 구조,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의례적 요소가 짙게 묻은 공간임을 짐작할 수 있다.

개성 만월대의 서북건축군에서도 별도의 의례공간이 확인되었다. 서쪽에 배치된 ‘다’ 건물지군은 선대왕들의 명령을 모셨던 경령전과 불교의식이 이루어졌던 집희전으로 밝혀져 건물의 배치와 성격에 대해 참고가 될 만하다.

3) 숙소용 공간 - K·L·G지구

숙소용 공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요소는 바로 난방시설이다. 왕궁지에서 난방시설을 갖춘 공간은 K·L·G지구이다. G지구를 제외한 건물지의 규모는 정면 1칸, 측면 1칸이며, 모두 동쪽에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난방시설은 불을 땀 아궁이와 불길이 지나는 고래시설로 나뉜다. 아궁이는 치석된 석재를 ‘ㄷ’자 형태로 배치한 것, 자연할석 또는 할석과 기와를 벽석으로 구축한 것, 소결된 벽체로 이루어진 4가지 형태가 있다. 이중 치석된 석재를 이용해 구축한 아궁이가 비율이 가장 높다. 하지만 이들 아궁이 중 소수만 고래시설과 연결되는데, 당시의 난방방식이 건물의 기능, 성격, 신분 등과 관련하여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닌지 짐작된다. 반면, 일부 아궁이에서는 방화용 문을 고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철판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고래시설은 흙과 잡석을 이겨 만든 것과 할석을 이용해 고래독을 만든 줄고래 형태만 확인되었다.

4) 배수체계排水體系

왕궁지에서는 건물지의 위용 못지 않게 치밀하게 계산되어 설치된 배수체계가 확인된다. 왕궁지의 입지상 배수는 계곡이 있는 동쪽으로 주로 처리하였다. 배수체계는 배수로와 수구로 이루어져 있다.

배수로는 뚜껑돌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개거식과 암거식으로 나뉘며, 지표면을 굴착 후 잡석 등을 채워 그 사이로 물이 흐르는 맹거식도 있다. 개거식은 평상시 육안으로 관찰되며, 건물의 기단을 측벽으로 삼아 축조하였다. 암거식은 출입통로나 건물지 하부에 축조하고, 맹거식과 함께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는다.

배수 처리는 물의 흐름으로 인한 건물의 훼손 방지, 유속을 줄이거나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다. 축대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구 내부의 구조를 계단식으로 처리했고, 물이 나오는 부분에는 대형의 석재를 두어 땅이 패이는 것을 막

았다. 또한 배수로의 형태를 ‘S’ 자형으로 구축하여 유속을 감소시켰다.

용장성 왕궁지는 89년 F지구 조사를 통해 기존의 사찰을 개조하여 왕궁으로 활용된 점을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발굴성과를 통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해졌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왕궁지는 기존 사찰에 속하는 D·E·F·G지구를 개축하고, A·B·C·K·L·P지구 등 6개지구는 삼별초군에 의해 확장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황은 건물지의 배치간격 차이 및 중첩현상, 석재의 종류나 축조 방식의 차이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기존 사찰건물지의 범주에 속하는 건물들은 규모에 변화가 없는 G지구를 제외하고 모두 북쪽축대열에 맞추어 동·서로 나란히 배치된 형태로 정면과 측면 칸이 협소한 특징을 보인다. 여기에서 출토되는 유물들 중에는 통일신라시대 또는 나말여초에 특징을 갖고 있어 시기적으로 선행하는 유구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 사찰건물지들은 삼별초군이 왕궁으로 개축하면서 주건물 측면 칸의 규모가 2배 이상 확장되고, 정면 칸뿐만 아니라 측면으로 공간을 크게 확장하여 마당이 매우 협소할 정도로 빼곡히 건물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나머지 A·B·C·K·L·P지구 등 6개지구는 삼별초군이 왕궁을 조영하면서 새롭게 조성한 공간으로, 총 22동의 대형건물지가 확인되었다.

2. 外城(羅城)

外城(羅城)에 해당하는 龍藏山城은 총 길이 13Km 정도에 이르는 대규모의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벽과 서벽 및 동벽의 일부는 바다와 접하고 그 나머지 구간은 산 능선을 따라 축조되어 있다. 명랑해협을 향해 돌출되어 곳(串)지형을 이루고 있는 연동마을 뒤편 능선에서 벽파리 서쪽 능선을 지나 「목넘어골」 동쪽편까지의 구간에 해당하는 北壁, 「목넘어골」 남쪽의 해발 35.8m 봉우리 정상에서 오류리 서쪽 능선-유교리 서쪽 능선-둔전저수지-국도 801번이 통과하는 「성재」 남쪽의 해발 62m 봉우리 정상까지의 구간에 해당하는 西壁, 「성재」 남쪽 봉우리에 해발 94.9m의 「성재」(제1 남문지)를 지나 군내면 용장리 남쪽 능선을 따라 벽파리 「운무골」 계곡 안쪽(남쪽)의 해발 232m 봉우리 정상까지의 구간에 해당하는 南壁, 그리고 이 봉우리에서 북쪽으로 이어진 능선을 따라 「운무골」 입구의 연동방조제 해안까지의 구간에 해당하는 東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남벽구간에 해당하는 왕궁터 남쪽 능선에서 해발 234.3m 정상 부근까지 500m는 2002년에 성벽을 정비복원하였다.

북쪽구간은 우리나라에서 유속이 가장 빠른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 명랑해협과 접해 있는데 3개의 만(灣)과 곳(串)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동마을 뒤편, 벽파마을

서쪽, 「목넘어골」 동쪽편의 곳지형과 그리고 이들 사이에 형성된 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벽파리를 중심으로 한 동·서쪽 지역은 1918년에 발간된 일제강점기 지형도에 간석지 안쪽에 堤防이 축조되었던 것으로 표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傳言에 의하면 그 이전에는 바닷물이 들어왔던 곳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만을 이루고 있는 이들 지형은 본래 썰물 때는 수심이 낮거나 갯벌 바닥이 드러나 선박이 통행할 수 없는 潮間帶地形을 이루고 있었다.⁴⁾ 현재 성벽은 곳지형에서만 확인되고 있는데 해안과 인접해 있는 까닭에 성벽이 외부로 노출되어 쉽게 관찰된다. 서벽이 통과하는 산능선은 유교리 뒤쪽 부근과 오류리 「세궁골」 부근만 80m 이상의 해발고도를 보일 뿐 대체로 50~60m 정도의 해발고도를 보이고 있어 저평한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오류리 탑골마을 앞쪽의 「세들」 부근이 둔전저수지의 동쪽 경계를 이루고 있으나 1918년에 발간된 일제강점기 지도에는 干潟地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오류리 탑골마을과 「세궁골」 입구 사이의 서벽 통과선⁵⁾ 부근까지는 명량해협으로부터 바닷물이 드나들었던 조간대지형으로 썰물 때는 수심이 낮거나 갯벌 바닥이 드러나 선박이 통행할 수 없는 지형을 이루고 있었다. 둔전저수지 부근의 서벽 통과선 지점의 축성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바다와 접해있던 둔전저수지 북쪽구간의 성벽은 북벽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성벽을 쉽게 관찰할 수 있고, 둔전저수지 남쪽구간은 주변의 산줄기로 인해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다. 남벽이 통과하는 산능선은 용장산성 구간 중에서 가장 높고 험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용장산성 내부의 용장리와 고군면 도평리를 이어주는 제 1남문지가 들어서 있는 「성재」⁶⁾가 해발 94.9m로 가장 낮고, 행궁지 남쪽의 봉우리가 해발 262.3m로 가장 높다. 그러나 대부분은 200~230m 정도의 봉우리를 통과하고 있다. 남벽구간의 능선은 바깥쪽 경사가 심하고 각각의 봉우리에서 다른 봉우리로 갈라지고 있는 까닭에 외부에서는 성벽이 전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동벽이 통과하는 능선은 대체로 해발 110~130m 정도로 남벽에 비해 해발고도는 약간 낮지만 지형조건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성벽은 외부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추정 將臺址와 祭祀遺蹟이 있는 仙皇山 정상부는 용장산성 가운데 가장 높고 험준한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다. 선황산은 남벽의 중간지점인 해발 225.9m 봉우리에서 북쪽으로 갈라져 이루어진 봉우리로 최정상부인 해발 230m 지점에는 추정 장대지가 위치하고 있고, 그 북쪽 30m 지점의 해발 219m 봉우리에는 제사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이 선황산 정상 부근에서는 용장산성 내부뿐만 아니라 명량해협을 포함한 신안군과 완도군의 여러 섬들이 잘 조망된다.

4) 이 간석지는 군내면 녹진리 망금산 동쪽으로부터 신동리-연산리-둔전리-둔전저수지 북쪽의 서벽구간을 잇는 지점까지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고 입구부에 해당하는 신동리 동쪽에 內島가 위치하고 있었다. 남쪽 한계는 제2 서문지로 이어지는 곡간지(「가느골」) 초입의 서벽 雉(78m) 부근이다.

5) 현재 둔전저수지 구간의 서벽이 통과하는 지점은 1918년 지형도에 논으로 표기되어 있다.

6) 현재 이곳에는 제1 남문지가 있는데 다른 성문과는 달리 敵臺를 갖추고 있는 점으로 보아 용장산성과 진도의 내륙을 연결하는 주 통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용장산성의 성벽 규모에 대해 『新增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한 조선시대의 모든 지리지에는 둘레 38,741尺으로 밝히고 있다.⁷⁾ 이를 당시에 적용되었던 布帛尺 遵守(46.73cm)로 환산하면⁸⁾ 18.1km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길이는 12.85km, 성내 면적은 258만평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지리지에 의해 복원된 수치와 실제 성벽 축조구간과는 약 5km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과거 바닷물이 영향을 미치던 간석지 부분을 포함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실제 성벽의 길이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1985년 지표조사에서는 용장산성의 북벽구간 및 둔전저수지 북쪽의 서벽구간까지는 土城, 둔전저수지 남쪽에서 용장리 서쪽까지의 서벽과 남벽 및 동벽은 石城으로 알려져 왔다.⁹⁾ 그러나 2004년 시굴조사 결과 용장산성은 사면부 바깥쪽을 이용하여 축조한 서벽 일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구간은 내벽과 외벽을 모두 돌로 쌓은 방식인 夾築法으로 축조된 석축성으로 밝혀졌다.¹⁰⁾ 또한 남벽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벽이 능선의 정상부에서 약 10~20m 가량 바깥쪽 사면부를 성벽의 통과선으로 하고 있었다. 성벽의 너비는 바깥쪽 경사가 심한 남벽의 일부 구간에서는 너비가 불과 1m에 지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최소 270~280cm, 최대 340~410cm로 구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균 너비 320~350cm로 성벽에 비해 성문 부근은 약간 두텁게 축조하고 있다. 그러나 높이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5자(尺)로 밝히고 있는데 布帛尺 俊秀(46.73cm)에 의해 환산하면 2.3m정도로 복원되기 때문에 삼별초군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실제 성벽은 그리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현재 높이는 남벽의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m 내외로서 1~2단의 성돌만 잔존하고 있다. 성돌은 주변에 발달되어 있는 암반층에서 떼어낸 거친 할석재를 이용하고 있다. 대부분은 성벽 통과선 주변에서 직접 채석해서 사용하고 있고, 일부 구간은 주변에 흩어져 있던 1m 전후의 바위 돌을 이용한 경우도 있다. 다만 북쪽구간의 경우는 다른 구간에 비하여 작은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하고 있는 점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주변에 석재가 풍부하지 못한 지형적인 조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성벽의 축조순서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성벽은 기왕에 퇴적토를 암반층까지 완전히 걷어낸 후 10~30cm 가량 황갈색 마사토를 수평으로 깔아 지반을 정리하였다.

(2) 그 위에 내·외벽 모두 얇은 판석형의 석재를 기단석으로 놓는 것이 대체적인 양상이나 내벽의 경우는 경사가 심한 남벽과 서벽 제 2서문지 부근에서는 기반암에서 성벽 축조에 필요한 석재를 떼어낸 후 그 위에 바로 성돌을 올린 부분도 확인되

7) 『신증동국여지승람』 진도군 고적

8)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성곽(邑城, 山城, 營鎮城)의 규모는 布帛尺으로 기록하였다.

9) 은하건축설계사무소 1985, 『진도 용장산성지표조사보고서』

10) 조선시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모든 지리지 역시 石築城으로 밝히고 있다.

고 있어서 지형조건에 따라 축조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3) 지대석에서 약 5~10cm 가량 뒤로 물려서 제 1단 성돌을 놓았으며 수직으로 쌓아 올렸다.

(4) 내벽과 외벽 사이에는 지형조건에 따라 황갈색 마사토와 잔자갈과 섞어 채워 넣거나, 외벽쪽에 약 1m 정도를 작은 할석재로 채우고 안쪽에는 마사토로 뒷채운 곳도 있다. 또한 잔자갈과 마사토를 한 겹씩 교대로 채워 넣은 부분도 확인되고 있는 구간도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지형조건과 성벽 축조구간 주변에 석재의 분포여부에 따라 뒷채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깥쪽 경사가 심한 남벽의 경우는 내·외벽의 面石뿐만이 아니라 뒷채움석도 같은 크기의 석재를 사용하고 있다.

(5) 용장산성 구간 중 유일하게 女牆이 확인되고 있는 남벽구간에서는 낮은 체성 부 위에 바로 여장(여담)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구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성벽의 바깥쪽 경사가 심한 지형적 조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때로는 체성의 너비가 불과 1m에 불과하여 여장처럼 처리한 곳도 확인되고 있다.

3. 附帶施設

부대시설로는 2004년 목포대학교박물관의 조사결과 동·서·남벽구간에 각각 2개소씩 6개소의 성문과 치성 2개소, 적대(敵臺) 1개소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용장산성 남문에서 벽파진을 잇는 도로를 중심으로 그 주변과 곡간지에서는 수 십개소의 건물지가 존재하고 있음이 새롭게 확인되어 도성 내부공간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제 1남문지에는 성문 근처에 적대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용장산성과 진도 내륙부를 연결하는 정문으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시설 가운데 성문지 2개소와 선황산 정상부에 위치하는 祭祀遺蹟 및 제사에 사용하던 물품의 보관과 음식의 준비 등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창고건물지가 조사되었다.

城門址는 제2서문지와 제2남문지가 조사되었다. 제2서문지는 둔전저수지 남쪽에 좁게 형성된 「가는골」 골짜기 중간부의 해발 54m 고갯마루에 위치하고 있다.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산성 내부에서 서문지를 지나 「가는골」 골짜기를 통해 곧바로 바다와 연결되는 위치해 있었다. 다른 성문지가 일직선상에 배치된 것과는 달리 북쪽의 성벽은 바깥쪽으로, 남쪽의 성벽은 안쪽으로 방향을 달리하여 약 45° 정도 엇갈리게 성문을 배치한 어긋문 형식이다. 성벽의 방향을 서로 틀어지게 배치하고 있고, 「가는골」 골짜기 중간부분의 고갯마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전혀 성문이 보이지 않는다. 개구부 너비 320~330cm, 측벽 너비 320~340cm로 정면 1칸, 측면 2칸 규모의 문루 주춧돌이 확인되었다. 52×52!80×84cm 크기의

할석재로 된 주춧돌은 정면 칸은 140~200cm, 측면 칸은 64~76c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제2남문지는 고군면 벽파리 연동마을 남동쪽의 운무골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산리 용장골로 이어지는 해발 172.2m 고개마루에 위치한다. 제2 남문지는 오산리 용장골을 거쳐 진도고읍성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내산리 내동마을 구룡골을 거쳐 동쪽 해안의 임성포로 연결된다. 일직선상에 배치된 성문으로 개구부 너비 260cm, 측벽 너비 410cm, 높이 30~100cm이다. 주춧돌이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문루를 두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춧돌은 33×58~32×63cm 크기의 할석재를 사용하였다.

祭祀遺蹟은 선황산 줄기 가운데 가장 북쪽 정상부의 해발 219m 지점에 위치한다. 남-북 장축으로 규모는 19×14.4m이다. 경사가 낮은 남쪽과 동쪽 부분에만 4단의 계단식으로 축조하였고 기단부를 포함하여 3단으로 이루어진 중앙부에 제단(祭壇)이 마련되어 있다. 제단의 내부에는 토제 전이 깔려 있어 상당한 격식을 갖춘 건물로 판단된다. 제사유적에서는 동전류, 토제·철제마, 청자 잔과 받침, 철화장고편을 비롯한 각종 청자 및 분청사기, 백자 등 자기류, 청동거울 및 청동수저, 벼루편 등 고려 초기에서 조선 후기까지의 제사 관련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다.

倉庫建物址는 제사에 사용하던 물품의 보관과 음식 준비 등에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건물지로 해발 230m 지점의 선황산 최정상부에 위치한다. 남-북 장축으로 현 규모는 14×5.6m로 파악되나 축대의 일부만 확인한 것이어서 얼마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단부는 다듬은 돌로 경사가 낮은 부분에만 축조하고 내부는 할석재를 채워 넣었다. 추정 장대지에서는 철제 술편을 비롯한 각종 철기류, 청동개, 대형 용 등 도기류, 다량의 기와 등이 출토되었는데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의 생활용기가 주로 출토되었다.

IV. 出土遺物과 築造時期

출토유물은 크게 기와류, 자기류, 금속류 등으로 구분된다.

1. 기와류

진도 용장산성 축조시기와 관련해서 연동마을 남쪽편의 동벽구간과 뒤편의 북벽구간의 성벽 내부의 고려시기의 단일층에서 「三月」, 「田〇〇」, 「大匠」, 「惠」, 「寺(?)」銘 등 용장산성의 축성시기를 밝힐 수 있는 명문기와가 단일층에서 출토되었다. 이들 명문기와 가운데 「三月」, 「大匠」, 「惠」銘 명문기와는 완도 장도

청해진의 지표에서 수습된 「癸卯」 명 명문기와,¹¹⁾ 그리고 이웃하고 있는 법화사지에서 12~13세기대의 청자와 막새류 등 기와류와 함께 출토된 「癸卯三月大匠惠印」 명 명문기와,¹²⁾ 신안 압해도 신용리유적에서 13~14세기 청자류와 함께 출토된 「癸卯三月大匠惠印」 명 명문기와¹³⁾와 문양 및 색조뿐만이 아니라 서체가 동일한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 간지명기와는 모두 어골문이나 무문에 타날한 것으로 기와의 태토 및 문양, 글자체 등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또한 진도 용장산성과 신안 압해도 신용리유적에서는 「田○」 명 기와, 용장산성과 완도 청해진 및 법화사지에서는 「寺」 명 기와도 함께 출토되고 있어서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명문의 내용으로 보아 이들 유적들은 계묘년 3월에 ‘大匠 惠印’에 의해 조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명문기와 가운데는 「寺」銘 명문기와와는 기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12~13세기의 용장성 건물지가 본래 사찰을 개조하여 삼별초가 궁궐로 사용하였음을 고려하면 본래 있던 사찰이 폐기된 이후 용장산성을 축조하면서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벽과 불과 1m 정도 떨어져 조영된 고분도 용장산성의 축조시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고분은 모두 파괴되고 한쪽 모서리만 남은 상태였는데 내부에서 청자병, 접시, 완, 청동수저 등 11세기대의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성벽을 축조하면서 고분이 파괴되었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출토품으로 미루어 11세기 이후에 용장산성의 성벽이 축조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고고학적인 정황과 삼별초군의 활동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2세기~14세기의 을묘년은 1183년(명종 13), 1243년(고종 30), 1303년(충렬왕 29) 가운데 1243년(고종 30)으로 보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1270년(원종 11) 8월 삼별초가 진도에 들어오기 27년 전에 이미 용장산성이 축조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왕궁지 출토 기와류는 평기와를 포함하여 막새(수막새, 암막새), 명문와, 마루기와에 속하는 치미와, 귀면와 등으로 분류된다.

막새류는 크게 5가지 종류로 구별되는데, 수막새는 8엽 단판연화문수막새가 가장 많은 개체수를 보인다. 이 수막새는 중앙에 자방부를 두고 8엽의 행인형杏仁形 연판부를 조성한 후 그 외연으로 권선과 연주문대를 조합한 주연부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문양 구성은 고구려의 수막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와당이 당시 지배계층의 권위상징과 사상을 반영한 유물임을 감안할 때 고구려를 계승한 정통고려임을 표방했던 삼별초군의 이념이 와당에 투영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이외에도 12세기 전반에 속하는 일회문日揮紋수막새, 귀목문, 당초문 암막새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막새의 문양들이다.

10)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장도 청해진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

12) 국립문화재연구소, 1992, 『완도 법화사지』

13) 이영문·고용규·한미진, 2005, 『신안 신용리 건물지』, 목포대학교박물관

마루기와에 속하는 치미鷗尾와 귀면瓦鬼面瓦는 목조건축에서 지붕 용마루와 귀마루 양 끝에 올리는 기와로, 국가의 주요건물 또는 사찰에서 주로 확인된다. 왕궁지에서 확인된 치미의 문양은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데, 새의 꼬리 또는 물고기를 형상한 것이 많다.

2. 왕궁지 출토 자기류

자기류는 12~13세기대 청자가 주류를 이루며, 주요 기종은 돈(의자), 병, 잔, 접시, 대접, 향로 등이 있다. 유물은 1989년 F지구를 조사했을 당시와 같이 대접과 접시류 등의 반상용기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제작기법은 음각, 양각, 투각, 상감 등을 이용한 12세기대 전성기 청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들 유물은 삼별초가 진도로 들어오면서 유입된 것도 있겠지만, 역시나 청자의 주생산지인 강진(사당리)에서 생산되어 수급된 것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왕궁지에 대한 3차 조사 당시(2010~2011년) 시굴구역인 M지구에서 의례용 매납유물인 진단구가 확인되었다. 진단구란 건물에서 출토된 의례용 매납유물로 건물 축조 시에 건물의 안전과 영속을 위해 지신에게 발원發願하는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착신앙과 도교의 지신 개념 위에 불교적인 의례행위가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개념으로 황룡사 9층 목탑의 축조시기에 처음 등장한다. 그리고 토지 전체에 대해 지신에게 기원하는 행위를 지진地鎭, 건물이나 기단의 축성에 관해 기원하는 행위를 ‘진단’이라 구분하기도 한다.

M지구 유물은 서쪽 축대 하단에 주춧돌로 판단되는 석재 측면에서 확인되었다. 오른쪽은 청동경-청동제 뚜껑-청동발-청자대접, 접시 순으로, 왼쪽은 청자접시 위로 청자대접을 포개올렸다. 중앙에는 청자잔 위로 청자병을 올렸다.

이 유물은 진단구일수도 있지만 당시의 급박한 상황과 출토지점을 감안할 때 급작스럽게 매납한 퇴장구 退藏具일 가능성도 있다.

3. 왕궁지 출토 금속류

왕궁지에서는 당시 국가나 사찰에서 사용되었던 다양한 종류의 청동유물들이 확인되었다. 청동유물의 종류로는 청동경, 청동주자, 동전, 수저, 접시 등이 있다.

청동유물 중에 단연 으뜸은 사자가 앞다리로 연꽃(仰蓮, 覆蓮)을 받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유물이다.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지만, 등축을 올릴 수 있도록 제작한 광명대의 받침이 아닐까 추정해본다. 그렇다면 하나가 아닌 대칭을 이루는 또 하나

의 유물이 있어야 된다. 다만 현존하는 광명대 받침의 결구방식과 차이가 있어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형태는 통일신라시대의 쌍사자 석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4. 왕궁지 출토 기타 유적 - 백비白碑

백비는 왕궁지 북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N지구에서 확인되었다. 점판암 소재로 길이 263cm, 너비 116cm, 두께 8cm 이다. 비석의 몸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바둑판 모양의 행간行間이 새겨져 있다.

백비란 글씨를 새기지 않고 세운 비석이다. 비석은 전면을 수마水磨한 후 찬撰→서書→각刻의 세 단계를 거치는데 이 비신은 출토상태로 보아 무엇인가 번고에 의해 찬과 서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각만을 남겨 두고 급박하게 매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양식은 12세기경에 나타나는 규수형圭首形 석비 양식으로 서봉사 현 오국사탑비(1185), 보경사 원진국사탑비, 보광사 중창비 등에서 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비신은 현재까지 확인된 예가 없어 고려시대 비석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고려말 삼별초의 대몽항쟁의 거점인 진도 용장성은 최근에 이루어진 연차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간략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용장성은 입지상 고려의 도성이었던 개성 만월대의 지형 이용방식과 닮아있어 주목되고 있고, 단순히 지형조건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전시상황에서 기왕에 있던 절을 강제로 폐쇄하고 공간을 대규모로 확장하여 최대한 많은 건물을 조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왕궁지는 단기간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기획에 의해 조성된 건물지와 다양한 유구들이 각각의 지구마다 완전한 상태로 남아 확인되었다. 이는 삼별초가 진도에 머무른 1년도 채 안되는 기간에 조성한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일이다.

삼별초군이 불과 9~10개월 동안 머문 점과 여몽연합군과 전투를 전개하는 동시에 전라도 및 경상도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해상활동을 통한 거점 지역을 확

보해 간 점 등을 감안하면, 이처럼 짧은 기간에 왕궁 및 내성을 비롯하여 용장산성까지 동시에 축조하였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단 및 초석으로 사용될 석재의 채석과 운반 및 가공(거친 다듬), 건축용 목재의 벌채와 운반 및 건조, 막새 및 평기와 등의 지붕재료에 소요되는 기와의 생산과 조달 등 일련의 건축 과정과 체계적인 배수시설 및 축대 등을 고려하면, 철저한 사전기획에 의해 삼별초군이 진도에 들어오기 2~3년 전에는 착공하여 진도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이들 시설이 완공되어 있었거나 거의 완공단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도에 입도한 직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장흥·나주·전주·제주 등을 공략하는 한편, 이후 여몽연합군의 상태로 한 전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도 이미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점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결국 용장성은 산 능선을 따라 축조되어 있던 산성을 외성外城으로 삼고, 사전기획에 의해 조성된 왕궁지와 궁장으로 이루어진 도성의 구조를 갖추었다. 이러한 구조는 개성 만월대와 강화도에 버금가는 위용을 자랑했던 또 하나의 고려 궁성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겠다.



사진 4. A·B지구 전경



사진 5. P지구 전경 및 집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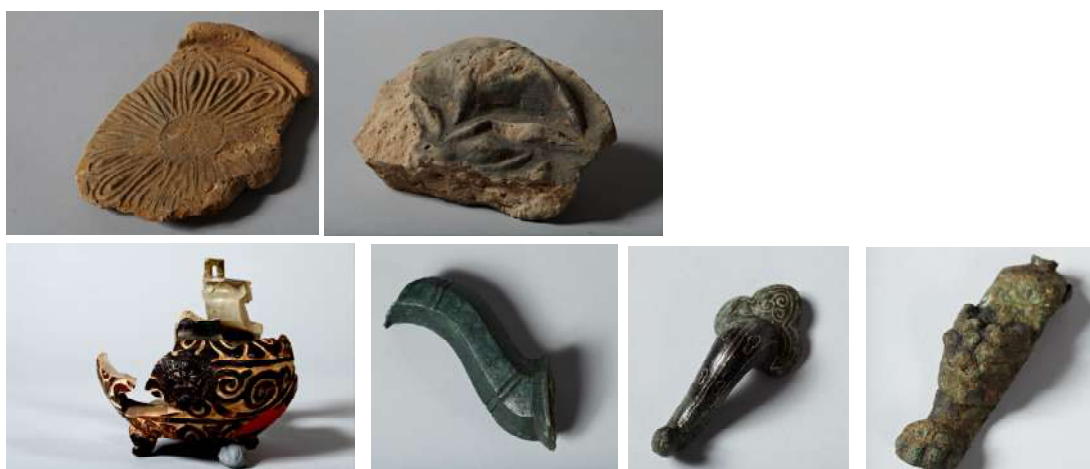


사진 6. P지구 출토 의례관련유물



사진 7. K지구 전경 및 난방시설(아궁이, 고래)



사진 8. L지구 전경 및 난방시설(아궁이, 고래)



사진 9. 각 유형별 아궁이 및 방화용 철판



왕궁지 배수체계 흐름도



개거식(開渠式)



암거식(暗渠式)



수구 내부 계단식 처리



맹거식(盲渠式)



출수구 앞 대형석재



배수로 바닥 계단 처리



S자형 처리

사진 10. 왕궁지 내 배수로 형태



건물 배치간격 차이



축대중첩양상



기단 축조방식 차이



석재 종류의 차이



석탑 옥신석



통일신라시대~나말여초에 특징을 갖는 유물

사진 11. 기존 사찰건물지 관련 유구와 유물



연화문수막새



귀목문암막새



수키와



연화문수막새



당초문암막새



암키와



귀면와



이형기와



장식기와

사진 12. 왕궁지 출토 기와류



청자돈



청자돈



청자류 일괄



청자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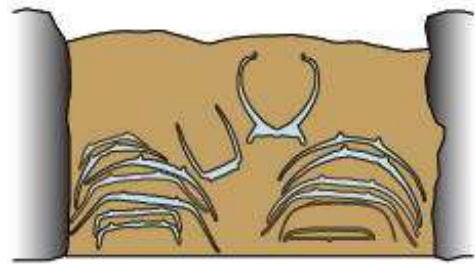


청자화병

사진 13. 왕궁지 출토 자기류



진단구



진단구 출토상태

사진 14. M지구 출토 진단구



청동사자상 광명대 받침 추정



청동접시



청동경



청동발



청동합

사진 15. 왕궁지 출토 금속류